

외상성 횡격막 손상

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홍은표 이동협 이정철 한승세

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7년 1월부터 1993년 8월까지 16례의 외상성 횡격막 손상 환자를 수술치험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.

1. 연령분포는 6-71세로 30-40대(75%)에서 가장 많았으며 남녀 비는 4.3 : 1로 남자에게서 많았다.
2. 외상의 원인은 둔상에 의한 손상이 11례로 이 중 좌측이 7례, 우측이 4례였으며 관통상에 의한 손상이 5례로 좌측이 2례, 우측이 3례였다.
3. 횡격막 손상의 수술 전 진단은 둔상의 경우 11례중 8례(72.7%)에서 가능했으며 관통상의 경우 5례중 1례(20%)에서 가능했다.
4. 외상후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둔상의 경우 6례(54.5%), 관통상의 경우 4례(80%)였으며 10일 이상 지난 후 시행한 경우는 좌측에서 발생한 둔상 3례에서였다.
5. 수술은 16례중 5례에서 개흉술, 3례에서 개흉 및 개복술 그리고 8례에서 개복술을 시행하였다.
6. 탈장은 총 8명의 환자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모두 둔상의 경우였으며 탈출된 장기로는 위장이 5례, 대장 3례, 간장 2례 그리고 비장 1례였다.
7. 수술 후 합병증은 8명에서 발생이 하였는데 그 중 창상감염이 5례(62.5%)였으며 2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12.5%의 사망율을 나타내었다. 수술환자의 사망원인은 허혈성 속, 간부전 이었다.